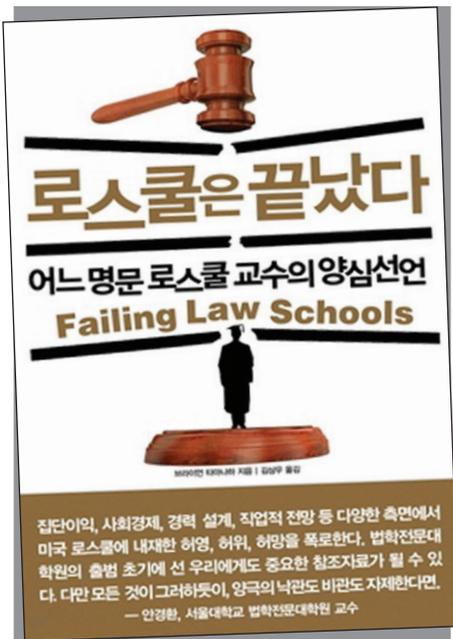


전문가 추천 서평 141호 2013년 8월 14일 발행처 국회도서관 발행인 황창화 편집인 우학명

『로스쿨은 끝났다 -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 원 제 : *Failing Law Schools*
- 저 자 : 브라이언 타마나하(Brian Z. Tamanaha)
- 역 자 : 김삼우
- 출 판 사 : 미래인
- 출 판 일 : 2013. 4.
- 쪽 수 : 327

서평자_ 박 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법학 박사

목 차

어느 글_ 로스쿨의 추락

프롤로그_ 특권과 속임수, 이상한 관행이 만연하는 로스쿨

1부 정의 없는 정의의 기수들

1. **법무부, 변호사협회를 고소하다**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변호사협회 / 교육은 뒷전, 연봉 올리는 교수들 / '공익'이라는 명분의 이권 다툼 / 등록금 올리는 상표권, '인가 로스쿨'
2. **고비용 로스쿨을 만들기 위한 꼼수** 명문 로스쿨과 변호사협회의 아바위 / 엘리트 법학자들의 지식 카르텔
3. **교육보다 밥그릇 지키기** 공익 직무이기에 중신재직권에 정교수직을 줘야 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임상교수들의 투쟁 / 명분에 숨어 있는 속내는 철밥통 중신재직권 / 원칙보다 이해관계

2부 법 위의 사람들, 로스쿨 교수

1. **강의 부담은 줄이고, 연봉은 올려라** 명문-비명문 로스쿨의 강의시간 차이 / 역대 최저 강의시간, 여전히 축소 중 / 강의시간 축소가 초래한 문제들 / 수역대 연봉에도 불평하는 교수들 / 변호사보다 많은 로스쿨 교수 연봉 / 학생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고액 연봉
2. **법 실무 외면하는 먹물 법학자들** 실무에는 쯤병인 학자교수들 / 교수들의 지식 생산 비용을 왜 학생들이 부담하는가?
3. **늘어나는 교수, 늘어나는 예산** 교수가 늘어날수록 닫히는 연구실 / 교수 증원이 초래한 경제적 해악 / 규모의 덩어리

3부 무너진 상아탑

1. **문제의 근원은 대학 순위 평가** 조작된 취업정보: 취업률 부풀리기, 장학금 유인책 / 로스쿨을 장악한 《US 뉴스》
2. **로스쿨, 순위 경쟁의 노예가 되다** 편법으로 운용되는 야간 로스쿨 / 돈 벌이로 전락한 전학생 유치 정책 / 가난한 학생이 부자 학생을 돕는 이상한 장학금 체계 /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독점

4부 무너진 로스쿨 사다리

1. **치솟는 등록금, 빛 권하는 학교**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 /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학생들 / 변호사 소득의 양극화 / 형편 없는 변호사 취업률 / 병 주고 약 주는 부채 담감 정책 / 로스쿨 경제학은 실패했다
2. **등록금 올리는 주범은 예일과 하버드** 비싼 등록금은 학교 운영비가 아닌 마케팅의 결과 / 학교 평판과 등록금 가격의 함수관계 / 비싼 등록금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
3. **로스쿨, 제값 하고 있나?** 의심스러운 로스쿨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 / 대학 서열별, 직종별 변호사 연봉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4. **로스쿨 지망생들을 위한 경고** 로스쿨들이 떠벌리는 연봉에 속지 마라 / 높은 부채와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로스쿨에 가지 마라 / 로스쿨 지망생들이 꼭 해야 할 계산 / 로스쿨 지망생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로스쿨에 대한 경고**
6. **로스쿨,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법률시장의 지각 변동이 말해주는 것 / 로스쿨 추락의 근원은 무엇인가? / 로스쿨 교육의 다양성 필요 /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철폐 / 연방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강화 / 로스쿨 단위 연방 학자금대출상한제 도입 / 시장 원리에 의해 부단히 재편되는 로스쿨 / 바람직한 로스쿨 모델

에필로그_ 로스쿨에 필요한 건 '정의'

‘비싼 로스쿨’에 대한 내부자 고발

2009년에 제1기생을 입학시키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이며 우리의 법조인 선발제도를 둘러싼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책『로스쿨은 끝났다 :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 브라이언 타마나하 교수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의 원인과 대안을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과도한 인증 기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로스쿨을 인증하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주 대법원이 인증 받은 로스쿨의 졸업생에 대해서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인증 기준이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인증 기준에 의하면 정통 로스쿨은 학문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학술논문 저술이 중요시된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의 장려를 위해 교수 1인당 평균 강의시간이 축소되어 필연적으로 교수가 증원되었으며 그로인해 고비용 구조가 정착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법학도서관의 장서 수나 시설에 관한 과도한 기준도 고비용 구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로스쿨 문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과도한 순위경쟁을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시장은 대표적 평판 시장으로 각 로스쿨은 순위경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표적 순위평가인 ‘U.S. 뉴스’의 로스쿨 순위평가는 그 구조나 방법론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로스쿨들이 순위의 등락에 존망을 걸고 있음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평가기준에서 학문적 명성을 높이 평가하여 저명교수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격화되어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순위평가기준인 학점(GPA)이나 로스쿨입학시험(LSAT) 점수를 유지하면서도 학생감소를 막기 위해 로스쿨들은 편입이나 야간 로스쿨을 이용한 다수의 창조적 편법을 개발하고 있다. 심지어 통계자료에 대한 조작이 일부 로스쿨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제4부에서 저자는 로스쿨의 실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로스쿨이 과연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로스쿨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0만 불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저자는 미국 내 250개 대형로펌에 취직하거나 공직자 부채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을 지원하는 공직에 취직하지 못하는 한 부채상환에 있어서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저자가 지적하는 문제는 10대 명문 로스쿨을 제외하면 대형로펌에 취직할 확률이 50% 미만이며, 이 확률은 점점 감소하여 상위 100대 로스쿨 밖에서는 거의 0%라고 보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는 극히 일부의 로스쿨 학생을 제외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 로스쿨들이 연봉 등 기대수익에 대한 왜곡된 통계로 지망생들을 기망하여 학교로 유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로스쿨의 다양성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인증 요건을 폐지하고, 로스쿨별로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발을 보장하여 저비용의 다양한 법학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로스쿨들이 부단히 재편되고 U.S. 뉴스의 순위평가의 영향력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같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들이 한국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 구조가 지적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인가 기준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입법·입안하거나 이를 시행할 분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교직원들, 그 외 국내 또는 미국의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국회도서관 (TEL. 02-788-4228)

